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발판 마련

간협,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가능해져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2017. 7. 5.),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17. 12. 4.),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2017. 12. 15.)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후(2018. 12. 5.),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며(2018. 12. 6.),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2018. 12. 27.) 개정된 지역보건법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제16조의2)'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첫째,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역보건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12월 28일 배포했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

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사회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기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됨으로써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해왔다"며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

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간호사 제공급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방문건강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의 전담공무원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1면서 계속)

신규간호사들은 간호대학에서의 교육과 임상현장 간의 격차,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부족, 상황 판단력 미숙 등으로 인해 현실충격을 겪고 있다.

신규간호사가 현실충격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임상실무에 적응해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신의 역할에 적응하는 데 8~1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리셉터의 교육 하에 프리셉터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신규간호사의 경우 이직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프리셉터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고, 신규간호사를 교육하는 동안에도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즉 환자를 돌보면서 동시에 교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프리셉터의 자격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며,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상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외국의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 신수진 교수는 외국의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사례를 소개하면서 "신규간호사의 교육기간은 1년이 넘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Nurse Residency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해 약 1년간 1:1 멘토를 지원하고, 발전단계별로 임상실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신규간호사의 이직 감소, 지속근무 증가, 직무만족도 증가, 스트레스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비용 대비 성과를 분석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간호사 및 기타 의료전문가의 노동력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0년 4월부터 새로 졸업한 신규간호사에게 임상훈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간호사 등의 인제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에 연속 등에 의한 간호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간호사 교육을 위한 훈련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Transiti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간호사가 병원 근무를 처음 시작하는 1년을 임상적응기간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에 다양한 임상근무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시급=주제발표에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로 나선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교육전담간호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법적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병원의 부담을 줄여줘서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인 존중문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간호사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장은 "신규간호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의 토대가 된다"면서 "간호대학, 의료기관, 정부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간호사에게는 현장 적응의 시간을 주고, 신규간호사를 가르쳐야 하는 경력간호사에게는 업무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가 교육자적 역량과 리더십을 갖추 수 있도록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을 통해 계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중증병원간호사회장은 "중증병원의 경우 교육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수간호사급에서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현실이며, 프리셉터를 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병원에서도 교육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전담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독립된 수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신규간호사 교육을 전담할 간호사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한 후 신규간호사 교육관리료 신설 등 수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필자 세브란스병원 간호교육개발팀 간호부장은 "신규간호사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제도가 의무화돼야 한다"면서 "신규간호사 이직방지를 위한 핵심역할을 맡게 될 경력간호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순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해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2019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다. 각 간호연구팀의 연구논문이 구연 및 포스터로 발표된다. '광학센서를 이용한 수액 주입속도 모니터링 장치개발'(정효일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 '낙상생일 예측 모델 개발 및 평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연구'(안미정 세브란스병원 파트장) 특강이 진행된다. 02)2228-6804.

게시판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학술대회

세브란스병원 간호국(간호담당부원장 오경환)은 간호국 학술대회를 1월 21일 오후 3시30분 병원 연평대강당에서 개최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경림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4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 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간호사회 (02) 2266-7677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간호사회 (02) 527-339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 2061-647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보철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악간호사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정신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편집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기 '변화를 위한 리더십(LFC)' 워크숍 수료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 참여 ... 변화를 주도하라

대한간호협회 - 국제간호협의회 공동주관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KICN 간호리더십센터에서 진행된 첫 번째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인 '제1기 변화를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Change)' 워크숍 수료식이 지난 12월 19일 개최됐다.

수료식에서는 LFC 워크숍에 참가한 간호대학 교수와 간호사 등 20명이 이수증과 함께 ICN LFC 핀을 수여받았다.



LFC 워크숍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직접 개발한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1996년 최초로 시작돼 현재까지 70여개국에서 참여했다. 전 세계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주역으로 참가하고, 변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1기 ICN Leadership for Change(LFC)' 워크숍은 1년 과정으로 3차에 걸쳐 실시됐다. 간호대학 교수와 간호사들이 참여했으며, 신성례 ICN 제3부회장이 교육생으로 함께 했다.

워크숍 진행은 LFC 프로그램 전담강사인 크리스틴 쿠레시(Kristine Qureshi) 하와이대 간호학과 교수가 맡았다. 워크숍은 리더십 자가평가, 그룹활동 등 다양한 액티비티, 테드(TED) 토크 등 역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워크숍은 2017년 7월 10~14일 열렸다.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조직문화와 공동, 건강한 근무환경 만들기, 리더십과 관리의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봤다. 특별 프로젝트로 간호실무·관리·교육 등에서 개선해보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 실행계획을 세웠다.

2차 워크숍은 2018년 1월 8~12일 실시됐다.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사회자본, 협상스

킬, 조직정책 설계,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재무와 예산정책, 간호조직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 차세대 리더 육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3차 워크숍은 2018년 12월 18~19일 열렸다. LFC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와 성장에 대해 논의했다. 각자가 수행한 개별개발계획(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에 대한 자체평가를 했다. 팀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이어 12월 20일에는 Training of Trainers(TOT)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TOT는 LFC를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LFC 교육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심화프로그램이다. 제1기 LFC 수료자 중 15명이 참여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간호사들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ICN 간호리더십센터(KNA-ICN Center of Excellence for Nursing Leadership)를 설립했다. 센터 현판식은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가 끝난 직후인 2015년 6월 23일 당시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판은 대한간호협회 회관 1층에 걸렸다.

주혜진 기자 hjjo@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시상

최우수상 - 오택순 논산 병동보건진료소장 수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8년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컨퍼런스'를 지난달 개최했다.

이날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충남 논산시 병동보건진료소(소장 오택순)가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경남 통영시 연화보건진료소(소장 이유란)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보건진료소(소장 정연주), 장려상에는 전남 영암군 은곡보건진료소(소장 최미영)가 선정됐다.

컨퍼런스에서는 보건진료소 건

강증진사업 매뉴얼 연구결과,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를 발표 및 확산하고,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보건진료소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보건소장, 보건진료소장,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주혜진 기자 hjjo@

한국간호과학회 제7차 장기발전계획 수립키로

2020년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준비

한국간호과학회(회장 김희승)는 제48회 정기총회를 지난 12월 21일 개최하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학회는 제7차 5개년 장기발전계획(2020~2024)을 수립키로 했다.

2020년 학회 창립 50주년을 대비해 기념사업 준비에 매진키로 했다. 50주년 기념행사 및 50년사 발간 준비에 힘쓰고, 50주년 기념역사편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50주년 기념 발전기금특별위원회를 통해 모금운동을 추진하고, 소액기부를 계속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학회지 질 관리와 피인용지수(IF)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제12회 국제간호컨퍼런스(INC)를 10월 경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개발세미나, 통계세미나, 교수임상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별 문제집과 모의고사를 출판키로 했다. 회원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연구비 지원사업을 계속한다. 국민복지문 홈페이지 개정작업을 완료하기



로 했다.

예산은 13억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최영수 우수간호연구상=김철규 충북대 교수 △JKAN 우수심사위원장=김지연 동아대 교수, 김기은 계명대 교수, 김옥수 이화여대 교수, 김은주 강릉원주대 교수, 김지수 가천대 교수 △ANR 우수심사위원장=고영 가천대 교수, 박성희 군산대 교수, 배선형 이주대 교수, 염혜아 가톨릭대 교수, 한기혜 중앙대 교수 △연구비 지원사업=유미 경상대 교수.

개회식에 이어 '헬스케어 로봇 사례와 간호연구에의 적용 고찰' 주제로 김정은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특강을 했다.

주혜진 기자 hjjo@

'간호사 인식개선' 공모전 수상작 선정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UCC 및 슬로건 부문 시상

간호사 인식개선 UCC 및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자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간호사 인식개선 UCC·포스터·슬로건 공모전'을 지난해 10월 개최했다.

공모전은 '내 마음 속 간호사를 말하다' 주제로 진행됐으며, 간호사 인식개선과 관련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사례를 비롯해 글자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접수받았다. 공모부문은 UCC, 포스터, 슬로건이었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했다.

UCC 및 슬로건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UCC 우수상과 포스터 수상작은 없다.

◇UCC △최우수상= '그들의 건강과 생명 또한 소중하다'(송은석), 상금 100만원 △장려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홍유린) '나는 간호사입니다'(김정자와 1명) '간호사 없이 살아남기'(손은희) '사이다'(김근영 외 2명), 상금 각 20만원.

◇슬로건 △최우수상= '간호! 그것은 전번의 손길 전번의 마음입니다'(윤형남), 상금 50만원 △우수상= '간호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고맙습니다'(강정현 외 1명), 상금 30만원 △장려상= 오단비, 이지훈, 문수미, 이가은, 이에림, 김가현, 권은진, 원종환(이상 8명), 상금 각 10만원.

정규숙·이진숙 기자